

The 8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October 5~7, 2016)

2016년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근대 초 한국을 경험한 관찰자의 태도, 텍스트 해석의 차이, 영국왕실아시아협회한국지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The Attitude of Observers of the Early Modern Korea and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exts based on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발표자: 김 신

<차례>

서론: 우리를 규정한 타자의 시선

본론: 조선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 판단중지, 감정이입

결론: 우리 것에 대한 낯선 경험과 근대적 담론체계로의 편입

서론 : 우리를 규정한 타자의 시선

본연구의 목적은 영국왕실아시아협회한국지부의 자료(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를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 우리의 자연환경, 지리, 언어, 예술, 정치, 군사, 일상생활 등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근대적 담론체계에 포섭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¹⁾ 이를 통해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촉발된 외부와의 만남이 현재 우리의 삶의 범위와 내용, 즉 우리자신(ourselves)과 우리의 것(ours)’에 관한 근대적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고, 분류한 후, 지식(Knowledge)의 차원으로 규정해 갔는지, 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외교, 선교, 사업, 탐험 등 각자의 방문목적에 따라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의 경험이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서서히 조선의 존재가 서구에 알려지게 된다. 그런데 이른바 타자의 관점으로 특정사회를 분석, 해체 그리고 해석하는 작업은 결코 단순한

1) 우리가 흔히 ‘타자(other)’라 부르는 ‘외부인’들이 근대화의 시작 즈음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현재 우리가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주체, 대상,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개념 등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또 간혹 우리의 외부로부터 시작된 제도와 지식, 다시 말해 외래문화의 도입이 곧 소중한 우리의 것, 즉 고유한 전통의 파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때, 우리의 것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 하게 해주었던 이들이 다른 아님 외부의 낯선 타자들이었다. 물론 이들의 시선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을 설명한 이들의 관점이 지나치게 편향된 서구중심주의 혹은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한계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우리의 산과 들 그리고 강을 관찰하며 남긴 기록은 우리가 지켜내야 했던, 그러나 스스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문화들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재발견하는 귀납적 작업이기도 했다.

일은 아니었다. 개별존재, 즉 관찰자(observer)는 순수한 객관적 테제로 주어진 현상에 접근하지 않는다. 흔히 제3자로 불리우는 외부의 관찰자는 자신이 속한 특정문화권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부터 면역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화 초기,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외부인들은 그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속한 문화적 ‘필터(filter)’를 통해 당시 조선을 바라보았다. 이 과정에서 관찰자가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설명의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 소위 실증 과학적 방식은 특정 민족을 하나의 류(類)로 설정한 후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인류학은 비교방법에 기반하며, 그 목적은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었다.²⁾ 나아가 개별민족을 연구하는 인류학분야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기능주의와 상징주의 양자 모두는 환원주의적 한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온 관찰자는 단지 개별문화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지식, 그리고 문화 간 차이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가질 뿐, 개별문화의 완전한 이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테제였다. 그런데 문화에 대한 ‘부분적 이해’는 흔히 오해와 과장과 같이 불필요한 잉여담론을 생산으로 이어지곤 했다. 근대화 초기 조선에 대한 외부의 관점도 이와 거의 유사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과 타자의 관점, 이들 사이의 일치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이른바 ‘정체성’을 가지기 전, 우리의 정체성을 타자에 의해 규정당하는(being identified) 경험을 하게 된다. 소위 근대학문의 확장성은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삶으로 ‘빛어온’ 고유의 전통문화, 즉 우리의 것을 설명하는 담론을 대체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담론,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인식의 내용을 서구의 지식체계에 수렴해 버렸다.³⁾ 구체적으로 생물학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할미꽃으로 불려온 들판의 평범한 들꽃은 어느새 서구의 한 관찰자에 의해 *Anemone Pulsatilla L.(Pulsatilla Koreana. Nak)*라는 학명으로 분류된 후, 서구의 지식체계에 의해 규정되었다.⁴⁾ 우리의 것이 서구의 인식구조에 자연스럽게 포섭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근대화 지식체계로의 편입을 으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⁵⁾ 텍스트를 접하며 느끼는 경험 가운데 하나는 어느새 우리가 서구인들, 즉 타자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와, 과거 우리조상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적으로 특정사회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전파(diffusion)와 접변(acculturation) 그리고 배제(exclus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는 ‘총체적인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개인의 가치관에서부터 공유된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서술한다. 문화이해와 관련, 인류학자 보아스(Franz Boas)는 인간문명에 어떤 보편적 발전법

2) 제리 무어,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서울: 한길사, 2002), 215.

3) 사이드가 푸쿠로부터 차용한 ‘재현’이라는 맥락에서, 근대적 담론은 세계에 대한 특정한 재현을 생산하는 방식, 즉 담론이 통제하는 엄격한 형식의 문제일 수 있다.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 저, 《탈식민주의 이론》, 김문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216.

4) A Sister of the C. S. P. “Some Wayside Flowers of Central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 (1929), 33.

5) 사회·역사적 상황에서 다수를 일자화 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권력이다. 결국 국가는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것을 집단으로 상대한다. 개인을 상대할 때조차도 국가는 개인을 어떤 집단의 일부로 가정한다. 국가는 언제나 어떤 규정성으로 환원된 개인으로 변화시킨다. 국가에 의해 모든 술어적 표현들이 국가는 술어들을 관리하는 체제이다.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사르트르부터 바디우까지, 우리 눈으로 그린 철학지도》, (파주: 동녘, 2013).

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판한바 있다.⁶⁾ 보아스는 문화적 변수들이 실제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을 강조하고, 보편적 법칙의 존재를 거부한다. 그는 하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변천해 왔는가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개별문화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문화현상은 하나의 언어이다. 레비-스트로스에게 문화는 구문(syntax)으로 환원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구문의 이해를 통해 특정한 의식, 교환, 신화 등의 인간행위를 음운(phoneme)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서로 다른 종류의, 혹은 서로 모순적인 요소들의 진실한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은 사회현상의 각 요소는 오직 내재적인 체계의 수준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모든 문화를 하나의 의사전달부호(communication code)로 간주하고, 모든 사회과정을 하나의 문법으로서 취급하였다.⁷⁾

우리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요소(culture element)들이 문화복합(culture complex)을 이루며 발전해 왔다.⁸⁾ 동시에 우리문화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고립된 문화형식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 중국, 일본 등 외부와의 교류와 갈등, 국제관계가 야기한 외적 요인들과 한반도 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수들이 역동성을 이루며 우리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가진 채 형성되어 왔다. 중국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중국문화의 영향, 그리고 근대화 일본제국주의 식민주의로 인해 착종된 일본식 근대화 담론, 나아가 서구라는 제3자의 개입, 여기에 고유의 담론질서 및 기존 사회적관성이 파생하는 내부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시기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라는 타자와의 차별화는 이 같은 정치, 사회,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토대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일 한 가지는, 본 연구의 일차자료라 할 수 있는 영국왕실아시아협회 한국지부의 논문들이 쓰여진 시점이 다름 아닌 일본제국주의 정치체제하였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당시 영국왕실아시아협회의 한국연구는 상당한 용기와 특별한 사명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은 분명 인정할 부분이다. 영국왕실아시아협회 한국지부의 모든 연구 성과를 이 짧은 논문에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외부인들의 관점이 지향했던 관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이들 텍스트의 주된 논점은 무엇이며, 텍스트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저자의 태도, 나아가 그의 태도를 정립시키게끔 추동(推動)한 시대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론: 조선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 판단중지, 감정이입

당시 조선을 찾아온 이방인들 가운데 애초부터 조선을 목적지로 정하고 오랜 기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찾아온 이들도 분명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처음엔 ‘조선’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보다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을 목적지로 설정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차선’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들이 상당수였다. 즉 처음부터 조선을 목적지로 설정한 다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후 조선에 왔다 기 보다, 외부요인 의해 마

6) 제리 무어,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서울: 한길사, 2002), 72.

7) 레비스트로스, 《슬픈열대》, 박옥출 역 (파주: 한길사, 2007), 73.

8) 이광규,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35.

지못해 대안(代案)으로 조선을 선택한 이들이 실제 다수 존재했다. 이 때문에 개항 초 조선에 온 이방인 중에는 한국의 자연, 지리, 언어, 풍습, 사고방식, 달리말해 한국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국이나 일본을 목적지로 정했던 여타의 서구인들에 비교해 상당히 부족했다. 또 한국에 온 서구인들 가운데 많은 수는 단지 피상적 수준에서 조선을 보고 돌아갔고, 이 같은 짧은 방문은 외부에 대한 조선의 이미지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자의적 해석을 야기했다. 아울러 한국에 온 이방인 가운데 방문목적에 따라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본 일차자료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당시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조선의 자연환경, 삶의 모습, 문화 등을 판단정지(epoche)한 후, 현상학적 태도를 일관하는 순수관찰자의 태도가 있고, 두 번째, 조선의 역사, 정치, 제도, 사회현상 등에 감정이입(empathy)되어 연민(compassion) 혹은 계몽(enlightenment)의 당위적 의무론을 은연중, 혹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주관적 관찰자의 태도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텍스트에서 관찰자 개인의 선택과 입장에 따라 주제와 형식, 그리고 텍스트가 지향하는 강조점이 달라지는, 내용적 독특성(singularity)을 담지하게 된 일차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소 이분법적 도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같은 분류가 반드시 본 자료들을 이해하는 필수불가결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현상학적 태도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주관적 관찰자의 태도 역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생략된 채, 일방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주어진 텍스트의 해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논문저자의 직업, 소속, 방문목적, 개인적 가치관 그리고 출신국가 배경 등에 따라 이들이 서술한 텍스트를 크게 두 가지 서술구조로 구분하는 방식이 지나친 내용적 비약 내지, 환원주의로 볼 수만은 없다.

1. 현상학적 관찰자

다음의 논문들은 주로 현상학적 입장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주제들이다.

CAPTAIN BASIL HALL'S ACCOUNT OF HIS VOYAGE TO THE WEST COAST OF COREA IN 1816

ARBORETUM COREENSE

ECOLOGICAL STUDIES IN THE TONG-NAI RIVER BASIN, NORTHERN KOREA.
RALPH GARFIELD MILLS, A. B., M. D.

THE DIAMOND MOUNTAIN.
BY JAMES S. GALE.

SOME COMMON KOREAN FOODS.
J. D. VANBUSKIRK, M. D.

NATIONAL EXAMINATION IN KOREA.

BY H. B. HULBERT, F.R.G.S. (READ BY J. S. GALE).

POTTERY OF THE KORAL DYNASTY. (924-1392 A.D.)
A. L. LUDLOW, M.D

A SHIPWRECK (KOREAN) IN 1636 A. D.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J. S. GALE.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BY W. W. TAYLOR.

REPORT ON INVESTIGATIONS No. 2-January, 1924.
DEVELOPMENT AND TREND OF THE AUTOMOTIVE TRANSPORTATION IN
CHOSEN.

OLD KOREAN BELLS.
Beacon-Fires of Old Korea.
E. W. KOONS.

A ROYAL FUNERAL IN KOREA by HUGH MILLER.

A PLEA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MYTHS AND FOLKLORE
BY CECIL H. N. HODGES.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N. H. BOWMAN, M.D.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AFFORESTATION IN KOREA.
REV. E. W. KOONS.

THE PAGODA OF SEOUL.
BY J. S. GALE.

HUNTING AND HUNTERS' LORE IN KOREA.
BY H. H. UNDERWOOD.

GOLD MINING IN KOREA
EDWIN W. MILLS.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COREA.
BY THE RIGHT REV. MARK NAPLER TROLLOPE, D.D. BISHOP IN COREA.

COREAN COIN CHARMS AND AMULETS A SUPPLEMENT
BY FREDERICK STARR

THE VEGETATION OF KOREA.
BY ERNEST H. WILSON, M.A. Arnold Arboretum, Harvard University.

(Appendix to Professor Wilson's Lecture).

ARBORETUM COREENSE.
BEING A PRELIMINARY CATALOGUE OF THE VERNACULAR NAMES OF
FIFTY OF
THE COMMONEST

TREES AND SHRUBS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c.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THE CLIMATE OF KOREA, AND ITS PROBABLE EFFECT ON HUMAN
EFFICIENCY.

by J. D. VANBUSKIRK, M. D.,

KANG-WHA

BY REV. M. N. TROLLOPE, M. A.

HAN-YANG (SEOUL).

BY REV. J. S. GALE, B. A.

KOREAN FOLK-TALES.

BY H. B. HULBERT, ESQ., F. R. G. S.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

BY REV. C. T. COLLYER.

THE KOREAN ALPHABET.

BY REV. J. S. GALE, D.D.

COINAGE OF OLD KOREA.

BY M. ICHIHARA, PH.D.

MARRIAGE CUSTOMS OF KOREA.

By ARTHUR HYDE LAY.

KOREAN BOATS AND SHIPS

GLOSSARY AND KOREAN VOCABULARY OF NAUTICAL TERMS

KOREAN WEAPONS AND ARMOR

DIARY OF A TRIP TO SUL-AL SAN

(Via the Diamond Mountains.)

June 4th-20th, 1923

THE KOREAN RECORD ON CAPTAIN BASIL HALL'S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KOREA

INTRODUCTION TO THE "BIBLIOGRAPHIE COREENNE"

BY MAURICE COURANT

BOOK PRODUCTION AND PRINTING IN COREA

By the late Bishop M. N. Trollope, D. D.

ASTRONOMY IN KOREA

by W. Carl Rufus Ancient Korean Astronomy

FATHER GREGORIO DE CESPEDES

상기 연구논문들 가운데 예를 들어 게일의 THE KOREAN ALPHABET(By Rev GALE, D. D.)은 한글에 대한 심도 있는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것으로, 현재에도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될 수 없는, 괄목한 수준의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한글맞춤법과 음가(音價)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한글에 대한 로마자 표기조차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선교사 출신 필자가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단지 경이로울 따름이다.

CHART II.

Hong-mu's Alphabet of Initials (1369-1398 A.D.).

| Mixed. | Clear. | Partially Mixed Sounds. | Mixed Sounds. | Partially Clear Sounds. | Clear Sounds. | The Five or Seven Vocal Drift-Notes. | The Five or Seven Natural Elements. | The Five or Seven Notes of Music. | |
|--------|--------|-------------------------|---------------|-------------------------|---------------|--------------------------------------|-------------------------------------|-----------------------------------|---------|
| 全濁 | 全清 | 不濁 | 全濁 | 次濁 | 全清 | 七音 | 五行 | 五音 | 洪武韻字母之圖 |
| | | 疑 | 羣 | 溪 | 見 | 牙音 | 木 | 角 | |
| | | 의 | 기 | 기 | 견 | 音舌頭 | 火 | 徵 | |
| | | 泥 | 定 | 透 | 端 | 音舌頭 | 水 | 羽 | |
| | | 明 | 並 | 滂 | 幫 | 重唇音 | 水 | 羽 | |
| | | 微 | 奉 | 非 | 非 | 輕唇音 | 水 | 羽 | |
| | | 邪 | 心 | 從 | 清 | 精 | 音齒頭 | 金 | |
| | | 禪 | 審 | 穿 | 穿 | 照 | 音正齒 | 金 | |
| | | 喻 | 匣 | 曉 | 影 | 喉音 | 土 | 宮 | |
| | | 來 | 日 | | | 半舌半齒 | 半火半金 | 半徵半商 | |

CHART I.

General Chart of Material used in this Article.

圖聲中 卦八 極太

切牙 喉 舌 唇 牙

THE KOREAN ALPHABET

Chinese Alphabet of Initials

日來 喻 影 匣 曉 邪 心 從 清 精 明 並 滂 羣 泥 定 透 端 疑 禪 溪 見

게일의 연구는 매우 전형적인 현상학적 관찰자 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판단중지(epoche)를 지향하고 있는 이 같은 게일의 논문(THE KOREAN ALPHABET) (By Rev

GALE, D. D.) 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주관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게일은 “알파벳 또는 문자체계의 존재유무는 바로 문명인가 야만인을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문자의 존재여부와 관련, 다음과 같이 문자가 존재하는 서구(유럽)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Europe is in possession of the past through the blessing of an alphabet. (유럽은 알파벳의 축복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누렸다.)”⁹⁾

이어서 그는 일관성 있게, 문자체계의 존재유무를 인종의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척도로 규정한다.

I mention this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importance of so wonderful an invention. Without it, and its help, We should have been left the tribes of the central Africa, or the natives of the north American continent.¹⁰⁾

그의 연구에서 필자 게일은 한글의 탁월함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명백히 일방적으로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우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왜곡된 편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텍스트 저자인 게일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접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게일 역시 교육을 통한 고정관념의 확대재생산, 다시 말해 그 역시 거대 서구지식체계의 소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일 개인은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국가의 문화적 관성을 가지고 한국에 온 서구인 중 하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게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서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준거(準據)가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서구내부의 인식체계는 문자가 없는 민족을 미개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서구내부의 보편적, 인식론적 합의로 작동되고 있었다.

2. 주관적 관찰자

아래 연구들은 논문저자 개인의 의견과 해석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주관적 관찰의 연구결과들이다.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발견되는 텍스트도 있지만, 통계, 분석, 유비적 논증 따위와 같이 합리적 장치를 나열함으로써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텍스트 내부에 자신의 의도를 감추어 놓은 경우도 있다.

KOREAN SURVIVALS.
BY H. B. HULBERT, ESQ., F.R.G.S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BY REV. JAS. S. GALE, B.A.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9) Rev. J. S. GALE, D. D, "The Korean Alphabet",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 (1912), 327.

10) *ibid.*

IN

THE XVIth CENTURY.

BY I YAMAGATA, EDITOR, Seoul press.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SOME RECENT DISCOVERIES IN KOREAN TEMP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EARLY EASTERN CHRISTIANITY.

BY E. A. GORDON.

THE OLD PEOPLE AND THE NEW GOVERNMENT.

BY MIDORI KOMATSU, L.L.B., MA.,

Director of Foreign Affairs of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ARCHBISHOP MUTEL A BIOGRAPHICAL SKETCH

REPORT OF THE LIBRARIAN

to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May 31, 1937

CH'OE CH'I-WUN: HIS LIFE AND TIMES.

BY REV. G. H. JONES, PH. D.

주로 주관적 관찰자는 그들 앞에 주어진 현상을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 서구일반의 공통관념, 종교적 정체성, 문화적 관습, 개인적 관심사, 그리고 한국에 대해 논문저자 개인이 가졌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텍스트마다 독특한 내용적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선에 대한 저자개인의 입장, 즉 저자의 사회·정치·종교적 배경에 따라 사적관심사가 우선적으로 정해지곤 했다. 특별히 주관적 관찰자는 텍스트를 특정 목적에 따라 배열하고, 그의 논지를 전개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Harold J Noble이 쓴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텍스트에서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조선정치 권력내부의 정치적 변동성에 대한 서술이 다수 등장한다. 논문저자는 당시 조선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다수 피력하고 있는데, 이 중 유길준에 대한 저자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흥미롭다.

“You Kil Chun spent some time in prison after the emeute. He grew to be the leader in the Tai Wun Kun's party, and took an active part in the conspiracy which brought about the murder of the Queen. He was clever, vindictive, and cruel, and stop at nothing to further his own interests.”¹¹⁾

대표적인 주관적 텍스트저자 가운데 하나인 헐버트(Hulbert)의 논문은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 중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종일관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게일의 연구주제와 유사한 한글관련 내용이 등장 하지만, 필자의 입장과 저술목적에 따라 내용적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11)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 (1929), 23.

“조선의 왕 세종은 1406년 금속 활자를 주조하라고 명했다. 이것은 한자였지만 세종은 또 백성의 교육을 가능케 하는 음성 문자를 만들도록 명했다. 왕의 이러한 명령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와 비할 수 없이 간결하고 음성적인 문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훌륭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상위계층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첫째로 문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익혀버린 중국의 문자 체계를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둘째로 중국문자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는 상위와 하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정리하자면 중국 문자의 사용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첫째, 지적 내성과 둘째 카스트 성(신분차별)의 편견이었다. 이 왕조 후로는 딱히 눈에 띄는 중국의 영향력은 없었다.”¹²⁾

우리의 ‘한글’에 대해 헐버트의 분석은 현재 한글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글이 가진 음성학적 우수성을 서술하고, 아울러 지배자의 문자인 한자와 백성의 문자 한글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 의해 분화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헐버트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할 수 있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그러므로 특정민족의 언어이해는 곧 개별민족의 이해이다. 논문저자는 영어와 한글의 지리적, 역사적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글의 존재의의를 밝힘과 동시에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정체성(identity)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한국의 언어가 중국 것과 혼합되어 변형되었다고 했는데, 그 변형은 그 종류와 정도 면에서 영어에 대한 로만스 언어의 것과 동일하다. 시간 상 차이는 있어도 그 성격 면에서는 동일하다. 중국 언어가 한국 언어에 어떠한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¹³⁾ 이 영향력이 시작했을 당시 한국은 이미 중국의 문자 체계와 현저히 다른 매우 굴절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국 제도의 경우를 보면, 노르만 정복 당시 영국 내에는 정복자들의 언어와 달리 매우 굴절된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두 언어 사이의 구별은 모든 문자 체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¹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영국 제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 모두 단지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차용하는 것과 언어에 유연성과 품격을 더해줄 동의어들을 가져오는 것이 다였다. 두 경우 모두 법적, 계층적, 과학적, 문학적 용어들을 가져온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통의 단어들은 비교적 변형과정이 자유로웠다. 물론 많은 중국 용어들이 즉시 치환될만한 한국 용어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로 수천 개의 흔한 한국어 단어들만 바로 치환될만한 중국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어에서 특별히 풍부한 ‘의성어’들은 절대 어떠한 중국 단어로 축소되거나 유의어로 대체될 수 없다. 필자는 엄청난 양의 한국어 단어들만 외국어가 아닌 고유의 토착어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⁵⁾ 생각이 먼저고, 단어는 그 다음이다. 한국인들은 자

12) H.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29.

13) Ibid.

14) Ibid.

15) Ibid, 38-39.

신들이 이미 한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음성적 상징이 단지 필요했던 것뿐이다. 모든 신약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쓰여진 것은 한국인들이 단지 더 어려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가 필요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⁶⁾

저자 헐버트의 연구목적과 결론은 한마디로 중국과 다른 한국, 그리고 중국문화와 차별되는 한국문화 독창성의 강조이다. 그의 *Korean Survivals*에서 이 같은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필자는 일정부분 우리가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것, 즉 한국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반도에서 독자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지한 채, 울곧이 살아 오고 있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문화의 거대문화권력 하에서도 자신의 색(色)을 잃지 않고 살아온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고유한 가치를 정작 한국인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본 논문저자인 호머 헐버트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열망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점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⁷⁾

헐버트는 우리민족의 기원을 전통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의 영역이자 하나의 설화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한민족의 정령승배 전통을 언급함으로써,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저자 개인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는 논리전개과정에서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고대의 신화를 역사적 사실(fact)로 기술하는 저자의 숨겨진 의도는 왜 한민족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당시 주로 서구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분리된 채, 그들만의 독자적인 ‘한국의 문화’를 기록해나갔다. 이 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역사개괄(historical resume)이고, 두 번째 주제는 자연적 추론(natural deductions)이다.¹⁸⁾ 한

16) Ibid, 39.

17) 호머 헐버트는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중 하나이다. 호머 헐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버몬트의 뉴 헤이븐에서 출생했다. 1884년에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학대에서 공부하던 중, 한국의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외국인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1886년 서울에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고위 관료 자제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한계에 부딪힌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감리교에서 세운 the Trilingual Press에서는 편집장이 되어 한국의 문화와 삶에 대한 기사들을 쓴다. 1897년에는 국왕의 부탁에 따라 왕립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1901년 헐버트는 The Korean Review를 창간한다. Review지는 한글교육이 널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가장 논란을 일으킨 그의 주장은 한국이 일본을 계몽과 사회 진보를 위한 원천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견해였다. 일본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견해는 한 동안 지속되었으나, 1905년 대한 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을 The Korean Review 지를 통해 분명히 비난하였다. 1906년 대한 제국으로 돌아와 국왕으로부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대한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해주길 부탁받는다. 이 후 헐버트는 숨지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독립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옹호하였다. 1949년 그는 마침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도착 일주일 뒤 생을 마감하였다.

<http://www.raskb.com/blog/2013/02/13/homer-hulbert-biography>

국 역사의 시초는 단군이며, 이 단군 신화는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실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군이 가르친 유교적 교리(가정과 정부와 관련한)는 그 외의 한국적인 것을 추론해내기에 충분하다. 단군 이후 그 땅에 기자가 왔을 때, 기자는 중국의 문물을 많이 들여왔다. 중요한 것은 중국 문물이 소개된 과정인데, 기자는 중국 문물을 맹목적으로 들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국가를 세우고자 했으며, 또 언어에 있어서는 그 당시 한반도에 문자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자가 고조선시대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자시대는 위만에 의해 전복되는데, 이 위만과 그의 부하들 역시 모두 중국 사람은 아니었다. 위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만주 지방의 반(半)야만족이기 때문에 위만의 지배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86년 후 한 나라의 무제가 위만 시대를 무너뜨리는데, 정복한 나라 한은 기자 왕국에 야만인이라는 모욕적인 굴레를 씌우며 한국을 야만인들의 땅으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일부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 아니었다. 한국은 중국의 기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국과 반 야만족 사이의 교류는 중국의 한국 지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 세기 안에 저 멀리 부유 땅의 난민이었던 주몽이 한국을 지배하게 된 것도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여 갔다. 국토 윗부분과 더불어 아랫부분의 역사도 아주 흥미롭다. 위만에 의해 쫓겨난 기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 개의 연맹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한반도의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당시 한반도 이남은 서쪽에 위치하며 가장 세력이 큰 마한과,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변한, 그리고 동쪽을 지배하고 있던 진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나라의 이름들은 기자나 중국 난민들이 오기 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이름들이었다. 기자 세력은 역시나 그 토착 연맹왕국들보다 우세한 문명을 가져왔고 따라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나라에 마한 전체가 속하지는 못했다. 기자가 세운 왕국이 살아남았던 그 짧은 기간 동안 마한의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주몽의 두 아들이 내려와 마한을 무너뜨리고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백제는 중국인 혹은 중국 전통의 영향을 받은 그 어떤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상태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건국 이전, 반도의 남동쪽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 익히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던 그 때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은신처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독립 국가들 그 어느 것도 중국어로 된 것이 없으며, 신라의 건국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이 개입하였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동쪽 다섯 개의 토착 국가들은 하나의 정부 아래 통일되었고, 처음 그 이름은 신라가 아닌 서라벌이었다. 당시 모든 정부와 관직의 이름들은 완전히 토속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삼국의 건립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대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인 중국의 영향아래 놓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당시 한국과 중국인 사이, 일정수준의 혈통의 혼합은 존재했다. 역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서로 다른 종(種)간의 현명한 혼합은 최고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신라에 유입된 중국혈통의 경미한 유입은 신라 문명의 발달에

18) H.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914), 29.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백제나 고구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라는 고유의 문자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중국의 문자 체계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결코 이 체계에 맹종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체계를 한국인들에 맞게 변형시켜 나갔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언어체계를 채용했고, 외국의 언어체계로부터 독립해 고유한 토착어만으로 글을 쓴 사람은 당시 한국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한 최초의 한국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설총이었다. 설총은 소위 토착지역에서 ‘교육열’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개발한 이두문자는 실패로 끝났지만, 중국문법 체계와 차별된다는 점에서 반(反)중국적이며, 동시에 전체 중국 문자 체계와 결별하는 데 있어 진일보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신라인 학자는 최치원이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학문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많은 곳을 여행한 후 신라로 돌아와 그의 경험을 전함으로써 고국의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하지만 같은 신라인들의 질투로 유배되어 전기적 글을 남기게 된다. 신라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는 신라가 꾸준히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계속해서 의복, 법, 종교적, 사회적 관습들을 중국으로부터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용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적 정체성을 감소시키거나, 한국인의 기질을 중국인과 가깝게 만들지는 못했다.”¹⁹⁾

헐버트의 연구에서 우리는 그가 한국과 주변국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 정체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만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헐버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영국제도에 대한 유럽 대륙의 영향력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에 관한 유비논증을 시도한다.

한국과 영국의 제도가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대륙이 더욱 유사한 것이며, 두 경우 모두, 인과법칙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했다. 앞에서 한국 내 중국 혈통의 유입과 혼합을 언급했는데, 이 혼합은 천 여 년 전에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만주와 몽골의 침입이 한국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일하게 영국 안에서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확실히 한국 내의 중국 혼합보다는 영국 내 노르만족의 혼합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²⁰⁾

한국은 과학적인 생각들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술했는데 (천문학, 주술, 풍수 지리 등), 마찬가지로 영국은 기본적인 과학적 생각들을 유럽 대륙으로부터 전수 받았다 (의학, 수학, 철학 등).²¹⁾ 한국은 그 예술적 이상을 중국에 두었다고 했는데 영국도 이와 유사하게 라파엘, 멘델스존, 바흐 등 그들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한국은 그 문학적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했

19) Hulbert, 37.

20) Hulbert, 38.

21) Ibid, 40-41.

는데, 그런데 모든 형식의 시, 서사시, 서정시, 송가(頌歌), 소네트, 애가(哀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던가? 하지만, 이것은 단지 형식의 문제일 뿐,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다.²²⁾

한국인들이 중국의 의복을 모방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국가가 몇 세기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파리의 재단사, 제조사 집단에게 의복코드를 강요받아 온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의복에 관해서는 영국이 유럽 대륙에 매여 있는 것에 비교해 훨씬 중국으로부터 자유롭다.²³⁾ 한국은 이천 년 혹은 그 이상 중국이 종주국임을 인정해왔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영국인들이 그랬듯, 한국인들도 정치적 독재자보다는 지적계몽을 이룩할 수 있는 훌륭한 원천으로써의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역적 한계에 부딪칠 정도로 한국을 그들의 종주국으로써 억압하지는 않았다.²⁴⁾ 여기까지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영국제도에 대한 유럽 대륙의 영향력의 유사성을 설명이다. 만약 외국의 것을 단순히 빌려오는 것이 빌려준 자에 대한 완벽한 순응을 뜻한다면, 우리는 영국이 유럽대륙에게,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굴종 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영국이 어떠한 굴종을 보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문물의 단순한 차용이 한국인들을 중국인과 비슷한 성품과 특성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실용적이며, 침착하고 냉정하며, 계산적이고, 검소하며, 정책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한편 한국인들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태평하고, 근근이 먹고 살며, 의도가 있을 때는 관대하며, 절약하지는 않고, 정직하다. 또한 한국인은 자연을 매우 사랑해, 산을 오르거나 냇가를 거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책이나 지인과의 대화 등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과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만의 특징이다. 한국 설화의 풍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거기서 유교, 불교, 또 토속적 아이디어의 융합을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혁거세나 석탈해 이사금, 고구려의 주몽의 탄생 설화는 놀라우리만치 반(反) 중국적이다. 불교적 이야기도 참 흔한데, 이것은 불교가 한국적 상상력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²⁵⁾

허버트는 그의 논문을 마무리 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국인의 삶과 관습을 상세히 공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을 찾기란 참 쉬운 일임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국인들의 삶이 중국인들의 삶의 완벽한 복제물에 불과했다면, 유사점을 뽑아내고 차이점과 나란히 배

22) Ibid, 41.

23) Ibid.

24) Ibid.

25) Ibid, 42-40.

열시키는데 (그러니까 필자가 위에서 한) 작업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 한국과 중국을 모두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물어보고 싶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처럼 옷을 입지도 않고, 그들처럼 보이지도, 말하지도, 일하지도, 놀지도, 먹지도, 교류하지도 않는다. 가장 크고, 명확한 사실은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닌 것이 중국인도 아니다.²⁶⁾

귀납적 근거를 제시한 후, 논문저자가 결론짓고자 하는 논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중국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의 핵심이다.

주관적 관점의 경향을 보인 저자들 가운데 특별히 서구인이 아닌 사람이 등장한다. 당시 Seoul Press의 편집자였던 일본인 아이 야마가타가 바로 그 인물이다. 그 역시 전형적으로 자신의 고국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그만의 주관적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의 회복을 희망적인 어조로 환기시키고 있다. Seoul Press는 한국에서 발행이 허용되었던 단 하나의 영자신문으로 그의 역할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일상적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²⁷⁾ 우선 그는 텍스트에서 임진왜란 등, 조선과 일본의 갈등상황을 언급하고, 일정부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만 조선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를 가로막는 존재로 중국을 지목하는 부분은 논문저자의 정치·사회적 입장과 텍스트의 미묘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주관적 서술방식은 비단 특정인물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두 번의 전쟁 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당연히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히데요시 사후 권력을 차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평화를 되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되찾길 희망했습니다. 그는 조선과의 우호적 관계를 목적으로 쓰시마 봉건주를 교육시켰는데, 이것은 쓰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침공 후 조선과의 무역 등을 담당했던 쓰시마가 조선 사람들의 적대심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599년에는 쓰시마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곳을 점령한 중국 군사들이 그들을 인질로 삼자, 조선 정부는 일본이 침공 시 끌고 간 조선인질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쓰시마 정부는 몇몇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중국 군인들을 너무나도 몰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평화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1603년 조선은 진정 일본이 평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두 명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에야스는 사신들의 요청을 받고, 마침내 조선인질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²⁸⁾

한편 현상학적 혹은 주관적 태도와 상관없이, 근대화 초기 우리내부로부터도 서서히 과거와는 다른 담론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타인의 증언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중국의 속

26) Ibid, 45-46.

27) <http://www.raskb.com/blog/2012/08/30/raskb-returns-life-1911>

28) I Yamagata,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XVIIth Century.”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 (1913), 379.

국이라는 정치적 굴레를 벗어버린 조선은 이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근대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원하던 조선은 이제 명실상부한 근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는 이제 조선이 독자적 주권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당시 근대화를 지향하는 조선은 타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조선이라는 국호 앞에 대(大)라는 접두어를 삽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Together We have come to Your Excellenc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ah(大) Cho Sun. We desire to convey to Your sincere wish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Your Excellency and the United States.²⁹⁾

이런 변화는 개국 때부터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조선이라는 국호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선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같은 담론의 변화를 통해 당시 국제정세 하에서 조선의 입장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는 문자가 주는 일정한 고정 값에 제한되지 않고, 텍스트가 만들어진 정치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현상학적 태도와 차이를 갖는 주관적 관찰자의 텍스트라 해서 관찰자의 일방적 주장만이 나열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논문은 선택된 주제에 따라, 일정한 형식구조를 가지고 서술되었다. 그리고 논지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사실의 서술은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텍스트에 필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저자가 의도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결론: 우리 것에 대한 낯선 경험과 근대적 담론체계로의 편입

본고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타자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타자의 시선이 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닌 타자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수없이 많은 ‘조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곤 했다. 그리고 그 사이 근대화(modernization)는 우리를 통과해 지나갔다.

우리에게 근대 혹은 근대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통과의례는 아니었다. 타자에 의해 규정된 근대개념은 우리를 구경의 대상(being observed)에서 구경하는 이(being observer)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변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기 보다 외

29)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 (1929), 9.

부로부터 촉발된 압력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화는 권력의 형태로 전근대적 개인들에게 발전을 강요했다.³⁰⁾ 우리의 한계는 우리는 일찍이 우리가 갖게 된 소위 근대적 개념들을 해체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³¹⁾ 조선에 대한 이방인들(일본과 중국을 포함한)의 해석은 다층(多層)적이고 동시에 자의적이었다. 때론 전근대적 비문명 사회로 조선을 인식하는가 하면, 신기함으로 표상되는 조선이 있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경이로움으로 재현되는 조선도 있었다. 이방인들은 조선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조선은 계몽이 절실한 미개한 나라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은 지배자의 ‘글’, 한자(漢字)와 백성의 한글이 병존하며 배움을 중시하고, 유학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숭상하는 문인(文人), 즉 선비들에 의해 다스려 지는 나라였다. 그들에게 또한 조선은 연약한 나라였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또 외세의 침략을 번번이 막아내며 끝내 독자적으로 살아온 나라가 다름 아닌 유약한 조선이었다.

한마디로 당시 이들이 가진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파편적(fragmentary)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 조선을 소개하는 그들의 글에는 적지 않은 오역(誤譯)의 한계, 그리고 개인적 관점이 개입된 제3의 해석이 발견되곤 한다. 동시에 현상학적 태도와 주관주의적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상호교차하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뚜렷한 기준 없이 시도되는 경우도 역시 발견된다. 그런데 이 경우, 텍스트 이면에 자리한 숨겨진 의도는 독자의 해석에 의해 얼마든지 꼬집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다소 무질서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적이지 않다. 물론 이 같은 비연속성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조선은 ‘외부의 시선’이 읽어내려 했지만, 끝내 읽을 수 없었던 사회(문화)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그들이 바라본 조선은 그들의 ‘바람’이 재현된 조선이기도 했다. 그들의 희망은 다양했다. 조선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이국적(exotic) 풍습을 기대하는가 하면, 야생호랑이와 한국의 매사냥을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자 했고, 금을 찾아 조선의 변방 운산금광을 찾아온 이들, 조선의 계몽과 기독교왕국조선을 꿈꾸었던 이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분명 물리적으로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선은 자신의 욕망 내지 이상을 실현해야 할 ‘빈 공간’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 당연히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미지는 실제 그 사유와 대상이 분명 일치하는 것일까? 우리가 진정 한(限)의 민족인가?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이기에 우리는 줄곧 전쟁을 회피한 사람들 이었나?, 화려한 색에 거부감이 있어 흰색 옷만을 고집하며 입은 것인가? ‘하얀 옷’을 즐겨 입는다는 백의민족(白衣民族)은 본래 우리내부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후일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게 된다. 나아가 백의민족의 ‘흰색’은 언제부턴가 ‘조선의 백자’와 연결되어 우리의 ‘멋’과 ‘색(色)’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로 우리를 설명하는 한정(限定)어들, 우리

30) 발달 속에서 과거는 현재를 승격시키고, 현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역사속에서 현재는 과거에서 떨어져 나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인식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심리적 변천은 발달이며 동시에 역사다. 미셸 푸코, 《정신병과 심리학》, 박혜영 역 (파주: 문학동네, 2007), 55.

31) 해체는 텍스트에 잠재된 형이상학적 구조를 드러내어 진리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텍스트의 양면성과 불안정성을 폭로하여 이성 중심주의(logocentrism)의 전제를 와해시키려 한다. 유홍림, 《데리다 읽기》(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94.

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 술어(述語), 즉 무수한 형용사와 고유명사의 편린(片鱗)이 거의 보통명사화 되어,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실제 그런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으로 규정된 후, 특정의 이미지로 고정되고, 우리 내부의 담론으로 재생산 되어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기어진 낯설지만, 그럴 듯한 ‘거짓말’들, 즉 우리를 둘러싼 신화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보존과 계승으로 설명되는 ‘전통’이라는 담론권력에 의존해 우리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언어는 우리를 규정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 왔다기보다, 타자의 말과 생각에 의존해 우리자신의 고유함, 즉 우리의 정체성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왔다.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으레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른바 근대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 그 낯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참고문헌

일차자료

- H.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29-54.
- I Yamagata,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XVIth Century.”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 (1913), 379-401.
- Rev. J. S. GALE, D. D, “The Korean Alphabe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 (1912), 327-375.
- Harold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 (1929), 5-25.
- A Sister of the C. S. P. “Some Wayside Flowers of Central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8 (1929), 26-47.

이차자료 (국문문헌)

- 레비스트로스(박옥출 역주), 《슬픈열대》(파주: 한길사, 2007).
- 미셸 푸코(박혜영 역주), 《정신병과 심리학》(파주: 문학동네, 2007).
- 유홍림, 《데리다 읽기》(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광규,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사르트르부터 바디우까지, 우리 눈으로 그린 철학지도》, (파주: 동녘, 2013).
- 제리 무어(김우영 역),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서울: 한길사, 2002).
- 피터 차일즈, 패트릭 윌리엄스 (김문환 역주), 《탈식민주의 이론》(서울: 문예출판사, 2004).

Abstract

It was not natural for Koreans to modernize themselves, for the word 'modern' was defined by others. However, it was a huge breakthrough to change them from being observed to being observers. Their weak point is that we didn't have a chance to dismantle modern concept. Interpretations of Chosun by foreigners were both various and arbitrary. They recognized Chosun as an outdated or uncivilized society and a marvelous one. They saw what they wanted to see and focused on what they were interested in. Therefore, there were a lot of mistranslation in their writings. In addition, their basis of interpreting texts written in Koreans was not consistent. It was because they saw Chosun from their colored eye. Consequently, they represented Chosun as what they want Chosun to be.

Then, does what we know and accept naturally identify with the objects of our thought? A lot of modifiers such as adjectives and verbs define us, become our identity, and fix our image. The myth which surround us becomes our custom and tradition, which regulates us.

A language defines us. It was regrettable that we were not composed of our own words and thoughts but depended on those of others. In other words, our identity was made up of passively. It is through eyes of others that we can see the strange side of ourselves.

Keywords: Modern, Identity, Texts